



### 전남인평원, 합동 연주회·멘토링 행사 성료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목포아동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과 현장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범희승 원장이 바이올린 연주자로 무대에 직접 올라, 전남도 ‘으뜸인재’ 출신인 첼리스트 정민호 학생과 함께 합주를 펼쳐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정민호 학생은 2007년부터 17년간 목포 아동원에서 생활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으며, 현재는 미국 콜번 스쿨 유학을 준비 중이다.

범 원장은 “앞으로도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 동신대, 중국 유학생 배드민턴 대회 성료

동신대학교는 지난 10일 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중국 유학생 배드민턴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교육부 글로벌컬대학30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가 공동 추진하는 유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간 소통과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대회에는 동신대를 비롯해 목포대, 초당대, 세한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총 7개 대학에서 1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함께 우정을 나눴다.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참가자들은 지역 공동체 속 유학생으로서의 소속감을 체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경용 동신대 대외협력부총장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의 구칭지 총영사, 쉐이즈보 영사, 린난 영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동환 기자**



### 호남통계청,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15일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에서 호남권 내 지자체 및 한국은행, 학계, 연구원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호남권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 관련 통계분석사례,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인프라 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역현안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외국인현황’, ‘광주·전남지역 1인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을 발표하고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인프라 강화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지역통계발전협의회를 통해 호남권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지역통계에 반영해 지역발전과 정책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 광주김치타운-서구어린이급식센터, 협약

광주 김치타운관리사무소는 지난 16일 광주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서구센터)와 ‘어린이 김치교육 체험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김치 및 발효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어린이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김치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노형근 광주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허영란 광주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상호 지원 △광주김치 브랜드 홍보 △교육 매체·장비 공동 활용 △상호 업무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어린이의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전통 식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 **정상아 기자**



###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세미나 성료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5일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레미콘 실무자 품질 능력향상을 위한 ‘2025년 레미콘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김호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이슈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레미콘업계 스스로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요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레미콘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기점으로 레미콘 산업이 미래 건설환경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미콘 품질의 선진화와 품질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은 “레미콘 조합과 함께 레미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무안경찰, ‘모범운전자회’ 정기 간담회

무안경찰은 지난 16일 모범운전자회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경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회원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현황’, ‘사고 예방 홍보활동 및 캠페인 사례 공유’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고령자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반사판 부착, 농기계 종합보험 홍보 등 실질 지원책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각종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참여하는 교통지인,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이라는 기치 아래, 유관기관과 협력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 글로벌광주방송 ‘너와 나, 우리가 온다’ 이달의 PD상

글로벌광주방송(GGN)은 특집 다큐멘터리 ‘너와 나, 우리가 온다’로 지난 9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제301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PD상’은 방송계에서 창의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우수 프로그램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시대적 이슈에 발맞춰, 광주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너와 나, 우리가 온다’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토대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전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짚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한강 작가가 어린 시절 접한 5·18 사진첩이 이 다큐멘터리의 출발점이 됐으며, 이를 통해 문학이 고통의 기록과 기억의 확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통찰력 있게 담아냈다.

기획과 연출을 맡은 기은영 PD는 “이 프로그램이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의 진실을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작은 GGN글로벌광주방송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정상아 기자**



### 광주인재교육원 교육생 ‘어르신 돌봄’ 봉사활동

광주인재교육원은 제34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60명이 지난 15일 서구 베데스다요양원에서 ‘어르신 돌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핵심리더과정’은 실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중추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6급 공무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6개월 장기교육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어르신 복지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정서적 안정을 돕는 활동을 진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공직자로서 봉사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실무에 복귀해서도 어르신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승 인재교육원장은 “이번 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체득하고, 헌신과 봉사의 공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 ‘제38회 광주시민대상’에 허정 에덴병원 원장 선정

광주광역시시는 ‘제38회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로 허정 (사진) 에덴병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광주시민대상은 광주광역시 발전과 명예 선양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87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8년째를 맞고 있다.

허정 원장이 운영하는 에덴병원은 자연분만문화를 선도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아름다운 병원’에 선정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했다.

허정 원장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재임때 적십자화비 등 1억



53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레드크로스아너스 클럽 전국 128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광주전남혈액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 기부금품 모금과 구호활동에 앞장섰다.

허 원장은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남대학교 발전기금 4억2000만원 등 20년간 약 11억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국민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상아 기자**